



금샘마을도서관

#부산 금정구 #임대료, 자산취득비 지원

금샘? 금샘!

금샘마을도서관이 위치한 부산 금정구에는 금정산이 있습니다. 그 금정산 내에는 금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샘의 이름을 따서 금샘마을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샘마을도서관은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모인 공동체에서 함께 놀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장하고 배우고 재미있는 공간

금샘마을도서관은 책과의 만남, 책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개인이 성장하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배울 거리 또는 배움의 장소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신명나고 재미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금샘마을도서관의 2017 년은 어떠했나요?

긴급지원119는 도서관 한 해 활동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 매우 실용성 높은 지원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정상 임대료와 인건비가 살림살이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금샘마을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 까지 총 7개월간 임대료를 지원받아 도서관 사서 및 관장의 활동비를 조금이나마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시 활동비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담감이 한결 줄어 마음 편하게 도서관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매월 겪었던 도서관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도서관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교체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대출 반납프로그램이 코라시스넷에서 코라시스넷2로 변경되면서, 윈도우10으로만 호환이 가능하여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때마침 긴급지원119를 통해 언제 교체하나 생각했던 기기도 시기에 맞게 교체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모임도 늘고 회원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제일 큰 언니 격인 책모임에서 도서관생일 잔치를 축하하며 동극을 보여 줄때는 박장대소하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또한 활동가와 회원들의 나들이를 주선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안정이 도서관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기에 도서관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 지자체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울다가 웃다가 하는 공간이 이곳입니다. 2017년도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특별한 하루, 순간을 꼭 집어서 떠올리기가 어렵긴 합니다. 도서관 회원 분들은 하나같이, “도서관에 들어오면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 나가다가 또 서고 나가다가 또 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샘마을도서관은 참 즐겁고 위안되는 공간입니다.



2017년에도 이 공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하던 회원 한 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투병하시는 그 기간 동안 도서관회원들의 관심과 그분에 대한 애뜻함은 어느 형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분의 아이가 이제는 엄마 없이 도서관에 다시 와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에 이 공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공간에 대한 고마움이 바로 삶의 위로이자 엔돌핀입니다.

금샘마을도서관의 2018 년은 어떠한가요?

우리 도서관 회원님들과 주민들은 시끌벅적한 우리 도서관을 이해하고 좋아하십니다. 웃고 떠들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는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위한 재정적 자립도가 너무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문제인 임대료를 해결하기 위한 지정후원자 모집과 도서관 자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이용 주민의 자치역량 향상에 대한 교육과 활동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작은도서관이 밖에서 보는 것만큼 평화롭지 않고 치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가꾸어 가시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님들 존경합니다.

